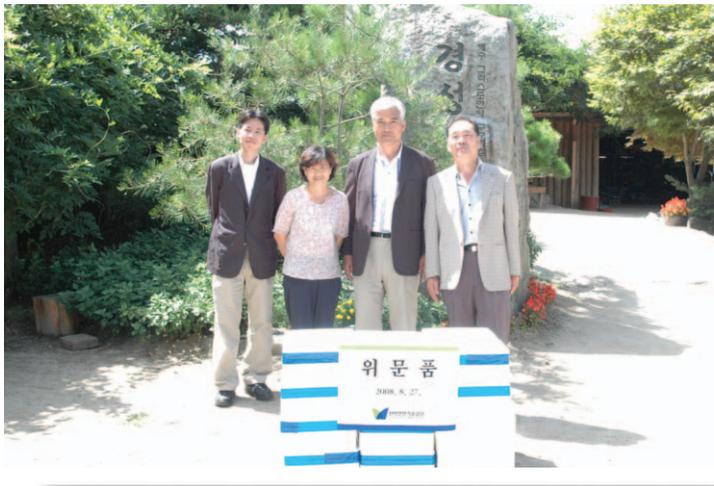


## 강원지부, 고객과의 믿음! 늘 새로운 생각! 우리가 으뜸!

이제 동해안으로 몰려왔던 피서객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귀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아직 망상해수욕장에는 때늦은 피서객들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모습을 뒤로 하고 강원지부를 찾았다.



▲ 사회복지시설 방문

편의를 위하여 동해, 속초 및 주문진 세 곳의 사무실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즉시 출장검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강원지부는 남한 최북단 어항인 대진항에서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삼척시 호산항까지 약250km 해안의 항포구와 양구군 파라호 등 내수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어선 1,808척, 일반선 42척 총 1,850척의 선박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해시에는 지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출장소, 주문진사무소를 두고 박점석 지부장 등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17개 지부 중 두 번째로 관할구역이 넓은 강원지부는 고객들의



▲ 박점석 지부장

강원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징어잡이어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는 야간에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구집한 후에 잡기 때문에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선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기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강원지부는 전기화재사고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전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직접 전기안전에 관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였다. 그 후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수협을 순회하며 어업인 61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징어잡이어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는 야간에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구집한 후에 잡기 때문에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선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기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강원지부는 전기화재사고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전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직접 전기안전에 관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였다. 그 후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수협을 순회하며 어업인 61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프로펠러 상태점검



▲ 집어등 및 전선점검

또한, 강원지부는 선박검사지정일 1개월 전에 어업인들에게 검사준비사항이 명시된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사전에 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 고객들이 공단의 세심한 배려에 매우 고마워하는 것은 물론 수검으로 인해 평소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강원지부는 동해안 수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낚시어선을 위한 해기사면허특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기사면허취득자가 826명이나 되고 응시자의 99%가 면허를 취득하였다. 전국평균 합격률이 40%임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또한 면허시험에 합격 후에도 소양교육인 면허취득교육을 3~5일 동안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참작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객의 시간과 경비(1인당 약 1백만원)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강원지부는 모든 검사원들이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검사원들로 이루어져 고객들이 고품질의 검사 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든 검사원들이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면서 선박검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선의 등록, 어업허가, 매매, 신조, 개조 등 선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역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어 강원도내 어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끝으로, 박점석 지부장은, “지부 전직원이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을 통하여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는 최상의 검사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People Inside

### 강원지부 운영식 주임



지난 1993년에 입사한 운영식 주임은 고객응대에 있어서만큼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직원이다. 강원지부에서 대부분 근무해 온 운영식 주임은 모든 고객들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하고 있다. 또한 동료직원의 깜짝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내부고객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동료들과 함께 늘 창의적인 생각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운영식 주임은 오늘도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한다.